

해외출장보고서

I. 출장 개요

1. 출장건명: APEC 심포지엄 참석 해외출장
2. 출장목적: 식품가공산업의 자유화에 관한 APEC 심포지엄 주제 발표
3. 출장지역: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
4. 출장기간: 2007. 12. 11 - 12. 15
5. 출 장 자

부서명(기관명)	직 급	성 명
농산업경제연구센터	연구위원	성명환

6. 출장일정

일 정	주요 활동내역	비 고
12. 12	심포지엄 참석	
12. 13	주제 발표	
12. 14	심포지엄 참석	

7.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

소속기관	직 급	성 명	연 락 처
말레이시아 농업연구개발연구원	Director	Tengku Mohd Ariff	603-8943-7332
Kasetsart Univ.	교수	Boonjit Titapiwatanakun	844-733-1115
Univ. Putra Malaysia	교수	M Nasir Shamsudin	603-8946-6732
abare	경제학자	김연	612-6272-2136

II. 주요 출장 결과

□ 심포지엄 개요

- 심포지엄 주제: Symposium on "Market Liberaliz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Market Structure, Conduct and Performance of Selected Food Processing Industry of APEC Member Economies"
- 발표제목: 한국의 농산물 무역자유화와 식품가공산업 : 대두 사례
(Trade Liberalization and its Performance of Food Processing Industry in Korea: Case of Soybean)
- 기간: 2007. 12. 12 - 12. 14
- 장소: 말레이시아 Quality 호텔

□ 주요 발표 내용

- 한국의 가구당 식품 소비지출 추이
 - 전체 식품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신선식품 소비의 비중이 1982년에 77%였던 것이 2006년에는 40%로 크게 줄어든 반면, 가공식품에 지출된 식품비의 비중은 1982년 23%에서 2006년 60%로 2.6배 증가
 - 시장 개방 이후 수입산 식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 식품의 품목별 수입건수, 물량, 금액 모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총 식품 수입액의 경우 2000년 40억 달러에서 2005년 76억 달러로 87.9%가 증가함. 가공식품의 증가율이 농·임산물의 증가율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.
-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
 -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을 살펴보면, 1차 산업인 농림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6.8%에서 2003년 3.5%로 지속적으로 감소됨. 농림생산업이 농업관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 39.1%에서 2003년 30.2%로 줄어들고 있음.
 - 반면에 식품가공산업, 식품유통산업 및 외식산업 등의 식품산업이 농업관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.7%에서 47.9%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- 식품가공산업(음식료제조업)의 사업체수, 매출액과 생산액 추이
 - 음식료제조업의 경우, 1980년부터 2005년 사이 사업체수가 4,595개소에서 8,389개소로 약 1.8배로 증가

- 매출액은 동기간동안 3조 9천억원에서 48조 3천억원으로 약 12.5배나 증가함. 이를 통해 식품가공업체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음. 이러한 규모화는 2005년을 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500명 이상 업체가 각각 전체 사업체 중 0.2%에 불과하나, 매출액 비중은 8.9%로 높음을 알 수 있음.
 - 식품가공업에서의 규모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, 생산 공정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.
- 농산물의 총공급에서 식품가공에 이용되는 비율은 1990년 12.5%에서 2003년 18.0%로 증가
- 가공식품의 수요증가에 따라 농산물 가공비율도 증가
 - 국내산 농산물의 가공비율은 1990년 11.4%에서 2003년 14.3% 증가하였고 수입산 농산물의 가공비율은 1990년 26.4%에서 2003년 38.9%로 크게 증가하여 가공용 농산물 수입이 증가
 - 농산물 가공 원료로 이용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품목은 국산 농산물은 낙농, 기타 식용작물, 보리, 콩류, 유지작물 등이고 수입 농산물은 기타 식용작물, 콩류, 감자, 식용임산물 등임.
- 곡류의 자급률은 1980년 53.3%에서 2006년에는 30% 수준으로 하락
- 밀과 옥수수의 경우 자급률이 각각 0.1%, 1%로 식품산업, 사료산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급률이 매우 낮은 수준
 - 대두의 경우 장류산업과 두부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자급률은 1990년 35.1%에서 대폭 하락하여 2006년에는 9.1% 수준
 - 서류, 채소류, 과일류의 자급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
 - 육류 자급률은 1990년 97.4%에서 2006년에는 86.1%로 하락하였지만 주로 육가공에 사용되는 돼지고기의 자급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
- 농산물 무역자유화 진행
- 2004년까지의 UR 농산물 협정 이행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리는 최소시장접근물량과 이행기간 동안 고정된 현행시장접근물량으로 구분되며, 이 물량에 대해서는 타 품목에 비해 낮은 관세로 수입
 - 시장접근물량의 운영방법은 국영무역, 수입권공매, 실수요자 배정으로 운영됨. 이러한 방식에 의하지 않는 민간 수입은 고율관세(종가세 또는 종량세)만 내면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이 가능
 -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는 내수용 물량을 지정기관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임. 실수요자 배정은 민간이 일반내수용, 사료용, 종자용, 종축용, 의약품용, 외화획득용 등 7개 용도로 사용할 물량에 대해서 저율관세로 수입토록 추천

- 현행 기본관세율 구조는 산업보호 측면과 소비자 보호적 측면이 고려
 - 대량으로 수입되는 대두, 옥수수 등의 시장접근 물량에 대해서는 5%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 반면 시장접근 물량 이외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적용
 - 농산물 가운데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으로서 종자, 공업용 원료농산물,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임.
 - 곡물류의 경우 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곡물이 곡물가공품과 역관세를 나타내고 있음. 특히 축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곡물과 박류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.
 -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유가공품, 육가공품 및 과일주스 등 국내 생산 비중이 높은 품목임. 유제품과 과채류, 견과류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은 원료에 비해 완제품의 관세율이 낮게 나타나 역관세 체제를 나타내고 있음.
- 콩의 공급 및 수요
 - 공급은 생산과 수입으로, 수요는 크게 사료, 가공식품, 식용으로 구분
 - 수입콩은 사료, 유지용 콩과 두부, 장류용 등 가공식품용으로 구분
 - 사료용 콩은 실수요자나 콩기름을 제조하는 착유사에서 직수입하여 식용유를 제조하고 그 부산물인 대두박을 사료업체에 배합사료 원료로 판매하거나 장류조합 등에 장류 원료로 공급
 - 가공식품용 콩은 국영무역 형태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후 국내 수매 콩과 혼합하여 두부용은 연식품연합회에, 장류용은 장류조합을 통해 실수요업체에게 공급
 -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가공용으로 수입한 대두의 경우 25~30만톤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입되어 가공원료로 이용
- 국내 생산 콩은 생산농가에서 자체소비하거나 시중에 유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며, 10% 정도는 농협이 수매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인도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입콩과 pool화하여 콩 가공업체에 공급
 - 2006년도 콩 수급구조를 보면 공급량은 수입이 87%, 국내 생산이 13%를 차지
- 국내 대두 가공업체는 대두생산 기반 약화로 대두유, 대두박의 원료인 대두를 전량 수입하여 대두유(식용유)와 배합사료의 필수 원료인 대두박을 생산하여 공급
 - 대두의 양허관세는 5%인 반면 대두유는 5.4%, 대두박은 1.8%의 관세가 적용
 - 대두유와 대두박은 저율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대두유 시장이 저가의 수입품에 의해 크게 잠식당하고 있음
 - 국내 대두 가공업체는 저가의 수입제품으로 적정 판매가격 유지가 어려워 손익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.

- 2005년 대두유의 국내 수요는 430천 톤임. 이중에서 수입량이 256천 톤으로서 수입대두유의 시장점유율이 약 60%를 점함.
 - 외국산 대두유 수입량 증가로 국내 대두유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
 - 대두박은 국내 수요는 2,186천 톤으로 이중에서 1,491천 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대두박의 시장점유율이 68%
- 장류산업 현황
 - 공장에서 제조한 장류는 2005년 고추장 15만 톤, 된장 16만 톤, 간장 20만 kI가 생산됨.
 - 장류의 국내 시장규모는 고추장 3,000억원, 된장 2,000억원, 간장 1,800억원으로 추정
 - 소비자 트렌드는 점차 담가먹는 집이 줄어들면서 식품업체들의 장류시장 진입이 늘어남.
 - 장류는 한국인의 음식에서 기본이 되는 식품으로 업체간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장류시장의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
- 두부산업 현황
 - 2006년 말 현재 두부 제조업소는 약 1,600개소임. 1995년 까지만 하여도 500여 개소에 불과 하였으나 영업신고, 식품위생 등 각종 규제의 완화로 재래시장 등 소규모 시설의 공장이 많이 설립되었기 때문임.
 - 비교적 대규모 업체라 할 수 있는 1일 원료사용량 2.5톤 이상의 업소는 35개소로 전체의 2.2%를 차지하고 있고 하루 0.25톤 이하의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80%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
 - 2006년 두부제조에 사용된 원료 콩은 123천 톤, 대두분은 19천 톤으로 모두 142천 톤이 사용됨.
 - 두부원료 콩의 사용량은 2.2%의 업체가 전체 물량의 20% 이상을 차지
 - 두부시장의 규모는 2006년 연간 약 4,400억원으로 추산
 - 콩재배 농가의 감소로 국산 콩 공급량이 줄고 가격이 높아 현재 대부분의 두부제조용 콩은 수입콩으로 대체됨.
 - 두부업체는 정부 차원의 일괄 수입방식이 아닌 실수요자 단체에서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질의 콩을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.
- 대두 식용유 산업 현황
 - 소비자 환경과 유통환경의 변화로 식용유 시장에서도 점차 다양화와 고급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. 식용유 업체도 기존의 소품종 대량생산의 틀을 벗어나

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- 시장개방 후 참여업체 증가 및 유통업체간 경쟁 심화로 식용유를 생산, 판매하는 모든 업체가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. 업체에서는 가격경쟁을 벗어나서 품질 위주의 경쟁을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
-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류제품은 우리나라 사람의 기본적인 조미식품으로 앞으로도 계속 애용될 것으로 보임.
- 일반 식품산업과는 달리 영세업체들의 난립과 이에 따른 품질 불량, 또한 업계의 과당경쟁, 시설의 노후화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. 전체적인 장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시설투자, 기술자 양성, 연구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.